
쇠고기 먹는 인구는 대체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전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다 양계인 스스로는 쇠고기 위주의 축산정책을 장기적 안목에서 닭고기, 계란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란업계가 소나 돼지같은 상태로 성장했다면 지금의 산란하는 닭은 적어도 2천만수 이상으로 현재보다 30~40%는 더 있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축산물 소비경향이 가격 그 자체보다는 일반경제의 흐름이나 감각에 많이 연유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난가형성과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수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과잉생산으로 인한 피해만을 우려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는 앞으로 양계업을 양계업 자체로서 또 우리의 생업으로서 발전시키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과거와 같은 인플레이션을 활용한 사업개념은 크게 경계하고 또 버려야 할 것으로 안다.

산란계의 수수증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극히 완만하고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급격한 수수증가는 일시적인 과잉생산으로 난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며 누적되는 공급으로 인한 난가회복의 지연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수수는 증가시키되 서서히 함으로써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도 수요를 늘리게 하여 수익성 있는 난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산란계의 수수를 늘려야 하는 또 하나의 당위성은 계란이 국민식품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계란의 가치를 근자에 TV에 소개되는 1,000원의 영양학을 빌리지 않더라도 다 아는 사실로서 국가적으로도 극히 장려하여야 할 사업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것은 알의 영양학 때문만은 아니며, 기초축에 투여하는 소요자금면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닭은 육성비용과 산란시에 드는 제비용을 포함하여 총소요자금이 비교적 적게들면서도 많은 단백질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의 적극적인 장려가 요구되며, 우리나라 국민 일인당 계란소비량을 볼 때 장기적으로는 더욱 더 증가하여 적어도 4천만수는 확보되어야 구미선진국의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엄밀히 본다면 쇠고기는 식생활개선에 도움이 되는 축산물은 아니다. 쇠고기를 먹는 인구는 대체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전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 즉, 먹는 사람은 1년에 평균치의 몇배 이상이 될지 모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기호식품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쇠고기 위주의 축산정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닭고기나 계란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움직임을 정부나 어떤 단체가 해주기를 바라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노력으로 성취하도록 한다면 양계인으로서의 보다 큰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계란, 더 싸게 생산해야

지난 추석 때의 난가는 과연 바람직한 것이었나?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기분이 좋겠으나 앞으로의 비성수기를 생각하면 불안한 생각이 앞설 것이다. 더우기 금년 가을부터 유향수수가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닥쳐올 또 하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정은 아랑곳없이 난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경험해 왔다. 따라서 언젠가는 다시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것은 경기의 후퇴에서도 올 수 있겠으나 난가가 높는데 기인될 수도 있다. 따라서 더 싸게 생산한다는 것은 낮은 난가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생존할 수 있으며, 또 싸기 때문에 구매력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해서 양계업은 계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값싸게 생산하기 위하여 사료값이 내려가면 저렴한 비용으로 계란을 생산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산란계 사육자들은 많은 금액의 안정기금 축척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수년동안 이 자금이 산란계 사육자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극히 미비하다. 오히려 다른 축종을 위해 사용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생각 같아서는 양계용으로 사용되는 옥수수 가격에 다소나마 혜택이 있었으면 하기도 했으나 성사되지는 못했으며, 그동안 안정기금조성에 기여하고 불경기로 탈락된 산란계 사육자들만이 헛수고 한 셈이 되어 생각만해도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지금의 난가 회복이 전적으로 우리 양계인의 끈기 있는 인내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정책적 배려위에서 성장하는 유아기적인 다른 축종에 비하여 보다 성숙했고, 또 자유경제체제에 보다 먼저 들어섰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사료가격의 격차는 모든 양계장이 비슷하게 영향을 주므로 여기에서 우열이 판가름 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인이 수년간 산란업계에 종사하며 알게 된 것은 같은 사료로 사육해도 산란성적이 동일하지 않다는 평범하나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 즉, 어떤 농장에서는 닭 한마리가 연간 260개의 알을 낳는가하면 어떤 양계장에서는 240개에 불과하였다.

여기에서 20개의 차이는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될 수치로서 이것은 바로 수익이고 또 계란의 생산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계란 한개 생산비를 약 50원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240개의 산란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260개인 경우 약 46원 꼴이 된다.

우리는 계란이 국민식품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 바라고 있다. 그것은 보다많은 계란을 국민이 소비시켜줌으로써 가능하며, 그 바탕은 바로 우리가 더 싼 생산비로 계란을 생산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싼 값에 계란을 생산하는 것은 계란의 수요를 창조할 수 있으며, 공급이 확대되고 양계산업 전체가 활성화 될 수 있으나 반대로 높은 생산비가 들게되면 수요가 위축되어 유



통에 경직 현상을 일으켜 우리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값싸게 계란을 생산하는 비결은 과연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 해답이 양계장안에 있다. 이것은 바로 최저생산비 개념을 근거로 한 말이며 양계장 밖에서 영향을 주는 사료비, 병아리 등 비용 항목이나 난가의 변동 형태등은 우리 양계인 모두에게 영향을 주므로 일단 시작한 계군에서 이들 요인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양계장 안에 있는 닭으로부터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이에따라 사업의 성패가 이루어져 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료의 단가가 할인의 정도가 문제가 되어서는 안되며 어떤 사료가 우리의 양계장에서 더 많은 알을 낳아주는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사료는 하나의 물질로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는 기술과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양계장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 하겠다.

보람과 긍지로 하는 사업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는 국민일인당 적어도 200개 이상의 계란을 공급해 줌으로써 계란을 국민식품화하여 식생활개선은 물론 국민 체위향상에도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닭을 길러야 할 것이며, 현재의 수수로서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본다. 만일 우리가

보람과 긍지로 하는 양계산업은
 국민 1인당 200개 이상의 알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체위향상에 기여하고
 떳떳하고 보람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긍지의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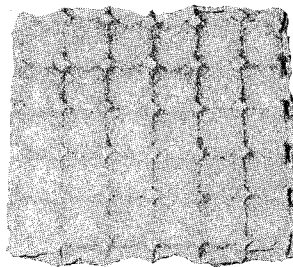
닭의 수수를 현재 수준이나 그 이하로 유지한다면
 국내의 난가가 계속 고가를 유지하여 당분간은 재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의
 반발로 인한 액란이나 난분수입의 창구를 터주는
 누를 범하기 쉬우며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놓
 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산란계 수
 수의 증가현상은 이미 시작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많은 닭이 길러지는 시점에서 닭의 수가 적어져서
 난가가 오르는 것을 바라기 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계란을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 보다 많은 계란
 을 공급하고, 계란시장을 계속 창조, 팽창시키면
 서도 우리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
 법이라 하겠다. 물론 여기에는 난가 형성과정에서
 생산비구조를 감안하는 새로운 시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고, 불합리한 유통구조의 개선에 정책적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란에 대한 홍보
 활동과 계란의 식품으로서의 용도를 넓히는 노
 력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88년 올림픽을 치루어야 한다.
 그때까지 우리도 선진국들과 같이 국민 1인당 200
 개 이상의 알을 공급함으로써 국민 체위향상에 기
 여하고 떳떳하고 보람있는 일을 해왔음을 확인하
 는 긍지있는 사업가로 성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종란, 왕란, 오리알용 종이난좌

- 알집이 큰 난좌가 새로 나왔습니다



질병 예방
 파란 방지
 신선도유지
 부화율 향상 등
 경제성이 높다

제일성형공업사

공 장 :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운암리 536-3 (한림바위 앞)

연락처 : ☎ (성남) 3-6239 대표 고 무 식